



“소프트웨어도 ‘재산’ 과 같이 관리되고 보호돼야”

“최근 BSA가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한 조사결과, 한국기업은 소프트웨어를 자산으로 여기고 관리하는 인자율이 아태지역 주요 8개국 중 가장 높았다. 그러나 완전한 소프트웨어자산관리(SAM: Software Asset Management) 모델을 도입한 곳은 47%에 불과해 적극적인 대 정부 차원의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롤랜드 찬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BSA : Business Software Alliance) 아태지역 마케팅 총괄이사는 지난 11월 열린 ‘2002 BSA 동계기자단 워크숍’에서 “한국이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야에서 모범생이지만 여전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재 김진경 기자



롤랜드 찬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아태지역 마케팅총괄은 “지난해 한국의 불법복제율은 48%로 지난 96년 70%를 정점으로 개선 중이지만 정보기술(IT) 강국의 위치를 감안할 경우 만족스런 수치는 아니다”라며 “한국의 대기업이 소프트웨어자산관리에 가장 많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소프트웨어자산관리에 대한 높은 인식을 갖고 있다. 하지만 47%만이 완전한 SAM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BSA 세미나와 2003년 국내활동 점검을 위해 방한한 롤랜드 찬은 BSA가 무역보복수단이라는 지적에 대해 “BSA의 보고서는 미 무역대표부(USTR)의 참고용일 뿐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USTR는 슈퍼301조 연례통상보고서 작성시 10여개의 자료를 참고로 작성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불법복제율에 대해 “호주 일본에 이어 아태지역에서 3번째로 낮은 수치이지만 시장규모의 증가로 절대 피해액(18만6500여달러)은 거의 줄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법복제율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조사기관마다 통계결과가 다른 것은 SW제품 단속범주 분류에 따른 것으로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는

사무용 SW를 비롯, 게임 운영체제(OS) 등을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시킨다”고 강변했다.

소프트웨어자산관리 필요성 역설

소프트웨어자산관리(SAM)는 소프트웨어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한 실무적인 접근방법으로 정책, 절차, 기술, 인력에 대한 관리를 말한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인터넷에서 상업적인 소프트웨어를 다운받는 행위,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상업적인 환경에서 사용하는 행위, 소프트웨어를 서버에 설치한 후 사용계약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설치를 허용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롤랜드 찬은 소프트웨어자산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SAM 모델은 기업이 효율적인 소프트웨어자산관리를 위해 BSA가 제시하는 지침서”라며 “아태지역 기업들이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산성 향상과 해킹과 같은 외부 침입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SAM 모델 도입을 통한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수적”이라며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것처럼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SAM 교육과 관련해 그는 “앞으로 BSA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가 기업이미지와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각종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업에 알려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이끌어내는 데 교육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BSA가 비영리 단체임을 내세워 결국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롤랜드 찬은 “컴퓨터 10대 중에 5대를 도둑맞으면 나쁘게 생각하면서 소프트웨어 5개를 불법복제하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활동을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BSA는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시만텍, 인텔, 델, 애플, 컴팩, 사이베이스 등 20여 IT기업이 각 사 제품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난 1988년 설립한 단체로 65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